

결 정

2018 - 4011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3.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4. 메트로미디어 발행인 이 장 규
5.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6.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12월 29일자(이하 캡처시각) 「형수」 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2월 30일자 「형수」 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2월 31일자 「형수」 제목의 광고, 메트로미디어(metroseoul.co.kr) 12월 31일자 「형수」 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2월 31일자 「형수」 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8년 1월 7일자 「형수」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①스포츠조선



<2017. 12. 29. 11:54 캡처>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nc=201712300100217030015315&ServiceDate=20171229>>

②스포츠서울

<17. 12. 30. 14:58 캡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84793>>

③헤럴드경제

<17. 12. 31. 18:54 캡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31000053&nt=1&md=20171231143754_BL>

④메트로미디어

<17. 12. 31. 20:35 캡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id=2017123000021#cb>>

⑤뉴스1

<17. 12. 31. 21:13 캡처>

<<http://www.news1.kr/articles/?3194780>>

⑥코리아헤럴드

<18. 1. 7. 23:40 캡처>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80107000030&kr=1&nt=1&md=20180107101624_BL&kr=1>

스포츠조선 등 6개 매체는 웹툰 ‘형수’를 광고했는데 이 웹툰 무료보기에는 시동생과 형수 사이의 성적(性的) 관계를 외설스러운 글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선정적이고 음란한 웹툰이 물론 맛보기 형태로 노출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광고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층의 정서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http://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14244&itemNo=700&openv=free>

흐....
미치겠네



형수가 고개만 돌려도
형수의 입과 내 거시기의 거리는
불과 10cm밖에 되지 않았다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